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07

Dutch Modern Housings

원제 :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흐린베르흐(Donald I. Grinberg)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 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역자 주>

목	차
01_역자서문/첫머리에/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산업화와 도시화	
02_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03_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카미로 지테의 영향	
04_건축사의 새로운 역할	
05_전원도시의 전통	
06_집합성과 공유공간	
07_표준화	
08_이데오르기(목적과 수단)/공간의 새로운 개념	
09_공간의 개방성·고층화/결론	

※ 저자 흐린베르흐(Donald I. Grinberg)는 미국인으로 하버드대학 대학원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건너가 델프트 공과대학 건축학부에서 연구하였다. 부인이 네덜란드인으로 자료를 모으거나 분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흐린베르흐 자신도 능숙하게 네덜란드어를 구사하게 되어, 네덜란드 체재 5년간의 연구 결과로 출판된 것이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이다.

※ 역자 최재석은 198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경원대, 목원대, 청주대 건축학과 강사를 거쳐 현재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전공은 건축 설계·의장으로, 특히 네덜란드 근대건축운동 중 '더 스테일(De Stijl)' 운동과 관련한 조형사상 및 색채실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역사학회·일본건축학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 건축사(1997)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저서로 '네덜란드 근대건축', '원주 근대건축', '더 스테일의 역사와 이념' 등이 있다.

표준화

더 스테일 지가 창간된 1917년은 주택법이 시행된 1902년 이후 네덜란드 주택산업의 최대의 위기였다. 1906년부터 1912년 사이에 지어진 25,000세대와 비교하여 볼 때 1917년에 건설된 5,000세대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였다. 이 주택을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1912년까지 주택법의 규정에 준하여 주택건설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이 주택개발에 기여하는 역할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었다.¹⁾

1917년 이전의 10년간은 주택건설의 양적인 측면보다도 오히려 거주에 대한 새로운 이념을 중시한 노동자용 주택의 창조에 대한 실험이 결실을 보는 시기였다. 전원도시 운동, 공유정원의 설치, 그리고 노동자용 주택의 현대적 표현을 발견하기 위한 플러크의 시도 등이 발전의 핵심이 되었다.

이 시기의 10년간은 네덜란드 건축가의 기본적인 보수성이 명백하게 밝혀졌지만²⁾, 베를라헤의 '사회예술로서의 건축'에 대한 이념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 시기는 1917년 10월에 창간된 더 스테일지의 초판에 결정된 이념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그림 1~3).

더 스테일지 초판의 지면은 몽드리아나의 신조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대부분 할애하고 있었는데, 내용은 주로 생활에 있어서 날로 증가일로에 있는 추상성에 대한 것이었다. 몽드리아인이라고 서명된 논문은 드문 경우이지만 몽드리아인이 새로운 기계시대에 미학으로서의 신조형주의 이론에 바탕을 둔 논쟁의 대부분은 확실한 것이다. "모든 분야

에서의 생활은 현실이지만 점점 추상화로 변하는 과정에 있다. 기계는 점점 자연적 힘을 바꾸고 있다."³⁾

1918년 1월, 더 스테일 지에 『예술과 기계』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한 건축가 아우드는 이 논문에서 예술과 기계의 관계성에 관하여 더욱 설득력 있게 기술하고 있다.

"현대예술가에 있어서 앞으로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처음 단계에서 이와 같은 경향은 이단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기계는 수작업 이상으로 명확한 표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최상의 수단이다. 기계로 인한 산물은 사회에 대한 현재의 예술적 산물 이상으로 이익 부여가 가능하고 이것만이 개인을 부유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⁴⁾

아우드는 기계 및 건축과 관련하여, 특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이루어낸 결정적인 표현을 의식하고 있었다. 1918년 1월, 더 스테일 멤버가 특별히 주택에 적합한 대량생산에 관한 명확한 언설(coherent statement)을 그때까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림 1. 웬딩언 지에 실려 있는 광고, 1918~1919년의 기점에서 볼 때 더 스테일 지면이 기술의 미래에서 희망의 기초를 부여한다는 유일한 중심점은 아니었다. 표현주의적 이념을 갖고 있던 웬딩언 지도 미래주의적 다양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중립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네덜란드가 주택 위기를 맞은 1918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러든가 공장생산품에 관한 광범위한 낙관주의적 사고가 존재하고 있었다.

나중에 더 스테일에 의해 표명된 기술에 관한 논쟁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미래주의자들의 영향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의 대량부족으로 인한 압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더욱 앞으로 기술이 부담할 역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더 스테일이라는 매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림 2. 민영집합주택 사례의 파사드 전경 (암스테르담, 보스 언 플러베흐), 1934
1934년까지 기술이 주택건설에 어느 정도 응용되었는가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중산층을 위한 집합주택에서는 중앙난방과 온수공급이 분양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편에는 '중앙난방과 온수공급, 따뜻한 물이 단절되는 것 없이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합시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 개량만이 사람들에게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지하실의 창고, 공유정원, 놀이공간도 있다는 것을 함께 선전하였다. 이런 기능주의 건축기를 위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전통적 건축의 범위 내에서 형성하고 있었다.



그림 3. 건설현장의 안내 게시판, 실내구성과 임대료 등이 적혀 있다.

1) 시기는 '50 Jaar woningwet' 에 근거함.

2) Theodore Brown, 'Dutch Architecture, 1907~17'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18(1967), pp.227-236.

3) P. Mondriaan, De Nieuwe Beelding in de Schilderkunst, De Stijl VI, No.5 (1917), p.53.

4) J.J.P. Oud, Kunst en Machine, De Stijl, I, No.3(1918), p.26.

베를라헤와 표준화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이 진행되고 있던 1913년에 국립주택위원회(National Housing Council)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주최로 1918년 2월 암스테르담에서 주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기술자인 바르덴(J. van der Waerden)은 주택산업에서의 표준화를 제안하였다. 그는 가능한 한 표준화된 치수체계와 건축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표준화된 평면계획(다양한 가족구성에 바탕을 둔 9개 타입)의 적용을 요청하였다. 또한 그는 건축 재료와 노동자들의 공급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중앙조직의 설립도 요구하였다.

이것에 관해 베를라헤는 주택회의에서 바르덴의 요구를 지원한다는 의지를 간략하게 표명하였다. 나중에 베를라헤는 헤이그 무역 산업·사회업무 협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베를라헤 자신도 1912년 초기 신포르트(Santpoort)에서 철근콘크리트를 적용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축과 기술에 관하여 확고한 위치를 찾지 못하였다.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서 트러스구조 표현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모리스도 높이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관한 보수적인 시점은 공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16년 플러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무엇이 현대성을 특징짓는지 베를라헤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깜짝 놀랄 정도로 새롭고 대단히 충격적이며, 우리들을 연이어 놀라게 하는 기계기술의 인상적이고 강한 면모를 말한다. 베를라헤는 적어도 현대성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베를라헤는 철근콘크리

트를 사용하여 건축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새로운 재료의 특징을 끌어내지는 못하였다. 다른 모든 네덜란드 건축사와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조적인 재료로서 적용되었다.”⁵⁾

이 지적에서 보듯이 베를라헤 건축을 아우드는 높이 평가를 내리는 반면 플러크 건축에 대해서는 비평적인 입장에 있었다.⁶⁾

그러나 베를라헤는 당시까지 건축의 기술적 발전과 관련하여 명백히 과도기적인 인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1918년 베를라헤가 표준화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 것은 그의 건축에 대한 사고의 새로운 전환점으로서 고려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도 아우드의 영향일 것이다.⁷⁾

이런 영향력과 더불어 베를라헤의 표준화에 대한 옹호는 사회와 미학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통합화하기 위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베를라헤는 표준화 제안이 단지 급속한 주택건설에만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환경에서 적용될 것을 전제로 적합화에 신중을 기하였다. 또한 그는 표준화에 대한 적용 이유를 주택이 좀더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우드의 『예술과 기계』라는 논문에서도 ‘기계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가장 좋은 생산수단이다’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량 생산은 표준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베를라헤는 이런 사고에 표준화의 의미를 두었다.

“우리가 대량생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주택건설은 대량생산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택을 단기간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가격의 저렴화도 가능

하다.”⁸⁾ 베를라헤는 각국에서 주택 표준화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목표로 만들고, 특히 프랑스의 주택 표준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가 르 꼬르뷔제가 제안한 도미노(Domino)이론(1914)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베를라헤는 대량생산에 대한 당시의 사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중요한 두 가지 논점을 이끌어 냈다. 노동자와 건축사 양쪽에서 표준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

베를라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현재 나는 반대 의견의 본질을 파악하였다. 노동자는 개성, 자유, 그리고 인간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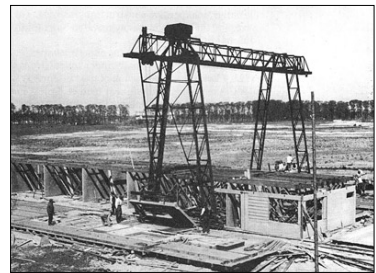


그림 4. 흐라이너, 바테르흐라프스메이어 시영집합주택의 건설 전경(암스테르담, 1922~24 '베톤도플'(콘크리트 마을)에 도입된 다양한 건설시스템 중에서 건축가 흐라이너가 제안한 공법이 가장 세련된 것이다. 건축인 측면에서 볼 때, 바테르흐라프스메이어 집합주택에서 암스테르담파의 자유분방한 사고와 합리적 건설기술의 한계를 조화시킨 풍부함을 보여주고 있다. 거주자에 의한 외부공간의 이용법은 전원 도시 이념과 일치한 생활방법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공간으로서의 더 스테일 비전이라든가 신축물주의적 경향보다도 더 위생적인 주거공간이라고 하는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그림 5. 도로에서 본 외부 전경

5) M. De Klerk, Bouwkundig Weekblad, 36, No.46(1916), p.331. 이것은 베를라헤의 60회 생일을 기념하여 쓰여진 것이다.
 6) 플러크(De Klerk)는 '베를라헤와 사무소 건축' (Dr. H. P. Berlage en Zijnwerk, 1919)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여기서 그는 런던에 건설된 윌러 사무소 건물(Wm. H. Muller & Co/Holland House)을 보고 난 직후, 베를라헤가 건축공예(building craft)를 순수화하려고 했지만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실리적이어서 건축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평하고 있다. 아우드는 플러크의 논문이 Bouwkundig Weekblad지에 게재된 이틀 후, 이 잡지에 투고한 글에서 플러크가 아직까지 베를라헤 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 논쟁에 관한 과정에 대해서는 프랑크(S. Frank)의 저서 'Michel de Klerk', pp.247~257을 참조.
 7)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우드가 헤이그에서 개최된 베를라헤의 강연에 참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아우드의 논문 'Normalisatie in Woningbouw' 는 1918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집필된 주택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De Stijl, I, No.7(1918.5)에 게재된 직후에 출판되었다.
 8) H.P. Berlage, Normalisatie in Woningbouw, p.22.

부터 침해를 받아 진실로 똑같은 주택의 반복으로 인한 무시무시한 단조로움에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주거를 통하여 마치 동물 무리와 같이 되며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또한 자유를 상실해 버리게 될 것이다.⁹⁾

이미 보아온 것과 같이 표준화와 반복의 상징적 특성이 이런 논쟁에 대립하여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베를라헤의 위치에서 약점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노동자와 지식 계급인 건축사에게 반복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베를라헤와 같은 가정(假



그림 6. 중정내의 공유정원과 인간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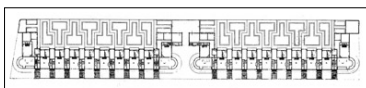


그림 7. 아우드, 혹은 반 홀란드 시영집합주택의 배치도 (2e 스히프바르 거리), 1924~27
대칭축의 도입이라고 하는 점에서 고전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순수하고 엄격한 요소와 자유스러운 요소와의 관계에서 미학적 혁명을 띠고 있지만 이런 계획에서 가장 상찬할만한 것은 세대자체의 수준 높은 쾌적함에 있다. 2층 세대에는 건물의 전면과 뒷면 양쪽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지붕 밑의 더그메(attic)가 없기 때문에 수납공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집합주택과 달리 집합성이 각 세대의 독립적 위치이상으로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가로에 면한 정원의 경계 벽을 벽은 잠재적 영역성을 재인식시키는 것이 되었다. 모든 세대에 가로에 면하여 전용현관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아우드는 거주자 자신에 의한 공간 이용 가능성을 확장할 수 없을 정도로 가로에 면한 공간적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

定)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대량생산이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고는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베르덴(Van der Waerden)의 표준화 제안에 대하여 건축사들의 반대는 격렬하였다. “건축사 또는 개성, 예술성, 그리고 창조적 자유에 대하여 공격을 받았다”¹⁰⁾라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

건축사에 대한 베를라헤의 주장은 노동자에 대한 것보다 더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동료 건축사의 고전적 지식의 문맥에 따라 논쟁을 세워 나갔다. 처음으로 베를라헤는 대단히 유념하고 있었던 합리주의와 관련하여 “대량생산 그 자체는 객관성을 전면(前面)으로 내세우는 것이다”¹¹⁾라고 하였다.

이런 베를라헤의 주장과 더 스테일 이론과는 유사성이 보인다. “이것은, 특히 예술에서 객관성을 요구하는 기회가 되었다. 객관적 형태화(objective stylization)의 불규칙성은 2차적인 것이다.”¹²⁾

이런 언급이 비록 불규칙성(irregularity)과 비대칭성(asymmetry)을 옹호한 지테의 이념으로부터의 탈피를 명확히 했다 할지라도 베를라헤는 자기 이론의 많은 것을 지테 풍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베를라헤가 1892년 네덜란드 건축사들에게 지테 이론에 대한 해석을 소개한 것과 더불어 도시확장계획안에서 지테 풍의 원리에 대한 적용을 이미 언급하였다. 그는 1915년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에 대한 해설에서 대량생산 방식의 도입을 대규모적이고 연속적인 주동과 관련시키고 있었다.

“건설의 성격은 완전히 변하였다. 주택

건설이 비록 부유한 중류계급을 위한 것일지라도 대량생산에 바탕을 둔 작업이 되었다.”¹³⁾

베를라헤는 당시 대규모 블록의 미학적 측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런 설명 과정에서 역사적 사례를 도입하는 단계에 지테의 수법을 인용하였다. 이런 수법, 또한 지테의 영향 하에 있던 어윈의 수법과 같은 것이다. 텍스트에 실려 있는 많은 그림들은 『도시계획과 그 실제』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카르타고적(Carthagenian)이고 로마적(Roman)인 도시계획의 인용에서 베를라헤는 가로계획과 주거계획이 동시에 다루어졌기 때문에 건축에서 이 두 요소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주택의 획일적 경향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베를라헤는 이런 표준화 이념을 연속적 역사과정의 일부로서 간주하고, 그리고 ‘동일한 주거에서의 주동(a building block with the same dwelling)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시대의 사례를 인용하였다. 베를라헤는 지테의 논문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근대도시계획은 도시경관의 개인화(individualizing)에 대한 투쟁이다. 결코 개개의 주택에 관한 것은 아니다. 주택의 리드미컬한 상태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동의 파사드(blockfront)’는 근대 도시건축의 공간적 요소가 되고 있다.”¹⁴⁾

이런 접근이 대량생산과 주동과 관련이 있다는 베를라헤 설명의 열쇠가 되고 있다. “똑같은 모티브의 반복은 근원적이고 미학적인 기능이다”¹⁵⁾ 게다가, 리듬과 반복을 통한 통일성을 확신하고, 이렇게 하여 미(美)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9) Ibid., p.24.
10) Ibid., p.25.
11) Ibid., p.36.
12) Ibid., p.28.
13) H.P. Berlage, Memorie van Toelichting, pp.910-911.
14) H.P. Berlage, Normalisatie in Woningbouw, pp.38-39.
15) Ibid., p.39.

베를라헤는 건축사와 노동자의 단조성(monotony)에 대한 지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단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기묘한 연속성으로 정리되었는지 아니면 똑같은 통일성으로 집합화된 과거의 사례로부터 건물의 복합체를 상찬하였기 때문이다."¹⁶⁾ 그러나 베를라헤는 건축에 대한 견해의 본질을 위해 개념을 접합시킴으로서 표준화의 정당화에서 역사주의를 초월하고 있었다. "실제 리듬의 질서를 구성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통일성을 줄지어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장식의 전체성에 바탕을 두고 각 양식의 원천에 기본을 두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의 전체성에 바탕을 둔다."¹⁷⁾

따라서 베를라헤는 건축사들에게 표준화 주택의 디자인에서 건축사들이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그는 건축사의 사회적 참여뿐만 아니라 직능으로서의 전통적 가치에 어필하였다. 이런 언급에서 그가 옛 것과 새로운 것과의 가교(架橋) 역할을 하였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진실의 아이러니는 그가 주택건축의 대량생산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미학적 논쟁을 끌어들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런 이념에 따라 주택건설을 추진한 1920년대와 1930년대 건축사들은 가끔 어떠한 미학적 동기도 부정하였다. 1918년 이후 20년간은 미학적 동기를 부정하기 위한 시도가 의도적으로 행하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라헤의 논쟁은 잠재적이지만 신즉물주의 건축사에게 주택건축의 합리화에 대한 신념을 만들어 주었다.

콘크리트 마을 : 암스테르담의 바테르흐라프스메이어, 암스테르담

주택계획의 원형(原型)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우드가 계획한 혹은 반 홀란드 집합주택과 끼프혹 집합주택을 들 수 있다. 좀더 발전된 기술혁신은 주택계획의 변화를 초래하였지만 대부분 신즉물주의 건축사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1921년 암스테르담시 주택국은 켈플러(A.Keppeler)의 제안으로 기존 방법과 다르면서 저렴한 건설방법을 도입하여 600세대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계속되는 주택공급의 어려움과 전통적 건축재료인 벽돌의 가격 폭등은 이런 상황을 부채질하였다.

실험적 건설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얼마간의 부지는 본래 암스테르담 시로부터 독립한 것이었으나 1921년 다시 합병된 바테르흐라프스메이어 지구 내에 있었다. 이 커뮤니티의 확장계획은 19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계획은 아흐네타 공원단지의 낭만적 곡선형태와 유사하였다.

영국의 전원도시는 이 부지계획의 모델이 되었지만 시스템 공법 사용이 의미 있게 변경되지는 못하였다. 약 50여 개의 건설회사가 계획안을 제출했고, 이 중에서 10여 개의 계획안이 실행에 옮겨졌다. 그라이너(D.Greiner)는 조립식 외벽 설치를 전제로 한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그림 4~6).

약 12㎡에 해당하는 각종의 외벽 패널은 현장에서 제작하였다. 이 패널은 3겹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는 경량콘크리트, 중간은 인슐레이션 단열재, 그리고 외부는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다.¹⁸⁾ 건설방법의 제한 범위 안에서 창안된 그라이너의 접근은 암스테르담

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포말리즘(formalism)을 가져 왔지만 한편으로는 만족할만한 것으로 이런 계획은 신즉물주의 건축사의 시각에서 보면 기본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바테르흐라프스메이어 지구에서 실험한 건설방법은 켈플러가 대량생산의 이념에 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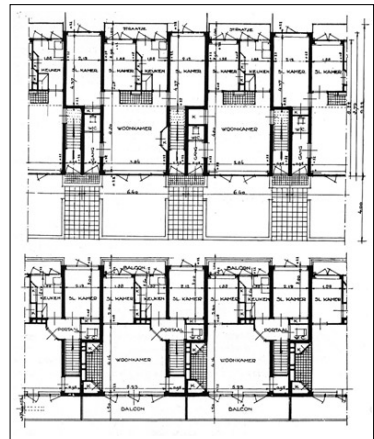


그림 8. 1층, 2층 평면도



그림 9. 주동 사이에 있는 상점 등의 서비스 공간



그림 10. 1층 개인정원과 2층 발코니의 전경

16) Ibid., p.42.

17) Ibid., p.34.

18) 이 계획에 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P. K. A. Pennink 과 W. J. Bruyn이 공동 집필한 Het Betondorp, 19, No.5/6(1965-66)을 참조.

이 관련한 것을 실천에 옮겼지만 네덜란드 정부와 보수적인 벽돌 생산업체는 이런 실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아우드와 더 스테일

아우드는 매스, 주택, 거리에 대한 다양한 이념의 도입에서 베를라헤와 공유하는 점이 많았다. 아우드는 『건축과 대량생산을 동반한 표준화는 베를라헤 사상의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었다. 1918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작성한 아우드의 논문은 같은 해 5월 더 스테일 잡지에 실렸다.

아우드는 당시 대량생산의 원리가 신조형주의(Neo-Plasticism)의 시점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가에 대하여 증명해 보이려 하였다. 아우드는 대량생산, 특히 주택회의에



그림 12. 외부 오픈 스페이스에서 헛간과 개인정원 사이의 경계



그림 13. 개인정원과 파사드의 전경 거주 세대 뒤쪽에 있어 완전히 다른 건축적 어휘는 전면과 후면의 기능적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유정원과 양립하지 않는 개인정원과 헛간의 병렬적 배치는 스방연 집합주택과 두스센다이겐 집합주택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원이 오픈 스페이스와 접해 있고, 이 두 가지 요소의 접합은 보다 강한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거주자에 따라 세대 뒤쪽 공간에 대한 변경 상태는 기프혹 집합주택의 경우보다 덜하다.



그림 11. 주동 뒷면에 있는 정원과 헛간의 전경

서 제안된 주택의 표준화 형(types)이 도시 이미지의 척도감각(尺度感覺)과 비례를 창조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아우드는 건축사의 역할을 균형 잡힌 예술을 위한 디렉터로서 기술하고 있다.

“매스, 출입문, 창문 등의 집합적 구성으로 균형 잡힌 대조성을 창출한 가능성을 항상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이렇게 완성된 집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이룰 것이다.”¹⁹⁾

어떤 의미에서 이 논제는 아우드와 신조형주의 원리 사이에 대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우드는 건축적 발전이 정신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적 영향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기술하고 다음과 같이 접근시키고 있다.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개인주택에서 지나칠 정도로 미(美)를 추구할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²⁰⁾ 1921년 아우드는 더 스테일을 탈퇴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나는 건축요소의 표준화를 통하여 형태의 양식적 제한의 구체화를 기다려 왔다. 아직 대량생산화 된 주택이 집합적 구성을 조직화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²¹⁾

아우드는 1917년 스트란트보우레바르트(Strandboulevard) 집합주택 계획안에서 집합적 구성을 계획하여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이것을 실제 자기작업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 1921년까지 아우드는 베를라헤 원리와 뚜렷하게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1921년의 시점에서 더 스테일에 대한 아우드의 의문은 두 스부르허가 1924년에 발표한 논문 『조형건축을 향하여』에서 확인되었다.

“새로운 건축은 단조성 반복과 반사 이미지, 그리고 대칭성의 딱딱함을 깨뜨렸다. 시간적 반복, 가로벽, 혹은 표준화도 인정하지 않았다.”²²⁾

이것은 아우드와 그 이후의 메르겔바 등

19) J.J.P. Oud, Bouwkunst en normalisatie bij den massabouw, De Stijl, I, No.7(1918.5), p. 79.

20) Ibid., p.79.

21) J.J.P. Oud, Über die zukunfftige Baukunst und ihre architektonischen Möglichkeiten, (1921)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London, 1960), p. 158 에 인용되어 있다.

반함은 베를라헤의 표준화에 관한 강연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22) Theo van Doesburg, Tot een beeldende architectuur, De Stijl, VI, No.67(1924), p.81.

과 같은 건축가들이 더 스테일 운동과 사회적 상황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평한 것으로 바탕을 두고 있다. 두스부르흐에 의해서 묘사된 미학성은, 예를 들면 리트벨트가 설계한 유틀레흐트 소재의 슈뢰더 주택(Schroder House)과 같은 개인주택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신조형주의는 대량생산, 방위의 일관성, 그리고 적절한 비용에 의한 건설을 기초로 집합주택의 접근성에 대한 모순을 입증하였다.

대칭성, 반복, 표준화라고 하는 요소는 많은 적든 거의 모든 아우드 작품에서 볼 수 있고, 이것들은 가끔 건축의 고전주의로 정의되고 있지만 아우드 설계의 집합주택에서 이런 요소는 논리적 귀결인 동시에 베를라헤가 1918년 발표한 원리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원형(原型)의 문제

주택의 대량생산이 미학적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지라도 비용, 저렴화에 대한 노력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일이다. 주택의 표준화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택 전체의 표준화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편적 인간 원형(universal human archetype)'의 개념²³⁾은 오웬(Owen)과 푸리에(Fourier)로부터 유래한 진보적 사회주의 전통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 하에 있던 네덜란드에서 평등 이념은 이런 것과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더군다나 19세기 유산은 인간 존재를 위한 이상적 환경 창조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서 과학의 가능성에 신뢰를 주었다. 이런 푸라이어(priori)의 모델적 사고는 20세기 주택 건축에 관한 이념적 발전의 대부분을 특징화하였다. 네덜란드 건축사는 CIAM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또한 '최소한의 주택(the minimum existence dwelling)'이라는 기본적인 개념 접근에도 영향을 주었다. 주거계획 그 자체의 반영으로 표준화의 의미를 좀더 상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상적 건축 유형(typologies)의 이념은 건축에서 대단히 오래된 것으로 완전한 사회원건축에 대한 그리스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상적 도시형태에 대한 르네상스의 실험에서도 볼 수 있다. 19세기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양식적 뇌문(stylistic meandering) 또한 기준(norms)을 모색하고 있었다.

19세기 건축에서 보다 중요한 사건은 '원형(prototype) 주거의 발견에 있다. 이것은 영국의 알버트 왕자(Albert Prince)의 지원으로 1851년 개최된 박람회에서 건설되었다. 이런 모델은 거의 대부분의 박람회에서 모방되었다. 일반적인 주거모델은 나폴레옹 3세가 파리에 건축한 41동의 모델이 계기가 되어 가족주의적 의미를 보여주기도 하였다.²⁴⁾

하워드와 같은 모델 주택의 창안자는 건축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한편, 표준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전원도시 운동은 '완전한 주거(perfect dwelling)'를 추구하는 매체로서 방향을 전환하고 있었다. 주택부족과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50년간의 수입에 비례하여 임대료와 건설비용이 항상 증가해 왔다는 사실은 무엇이 '최소한

(minimum)'이었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²⁵⁾

1902년에 시행된 주택법은 그 자체를 이 상형으로 확립하는 것을 특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원형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08년 건설촉진협회는 주택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 4세대로 구성된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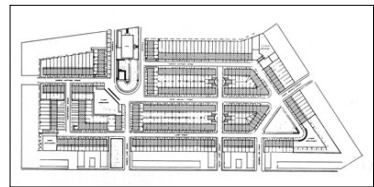


그림 14. 끼프혹 시영집합주택의 배치도(로테르담, 1925~29). 많은 요소를 대지에 적합 시키기 위해서, 아우드는 아우드-마데네세 집합주택과 후 반 홀란트 집합주택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량, 보완하였다. 그러나 발코니는 극히 제한된 예산에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배치계획에서의 다양한 접근은 반복된 단위세대 시스템의 틀에서 단조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비록 주동의 공간적 폐쇄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배치계획의 폐쇄적 경향은 미래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세대 단위의 영료성은 문, 환기그릴, 그리고 세대와 기로를 매개로 하는 손잡이, 혹은 울타리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요소를 제거하여 거의 완전한 정도로 억제되었다.



그림 15. 하늘에서 본 전체 전경



그림 16. 주동사이의 가로 공간

23) Choay, The Modern City: Planning in the 19th Century, p.98.

24) Bauer, Modern Housing, p.79.

25) Bauer, p.119, '1920년의 사회생활상 최소한의 규모를 갖는 주택은 1800년의 유사한 주택과 비교하여 볼 때, 수입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였다. 실제 생활수준의 향상에 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용 주거를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하였다. “본 설계경기의 첫째 목적은 품질이 좋으며 실용적이고 단순한 노동자용의 원형을 찾기 위한 것이다.”²⁶⁾ 이 설계경기는 특히 주택의 설계 및 건설에 관여하는 건축사의 역할을 촉진시키는 대신 상대적으로는 투기업자의 퇴보를 희망하는 전문화된 사회에 의욕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설계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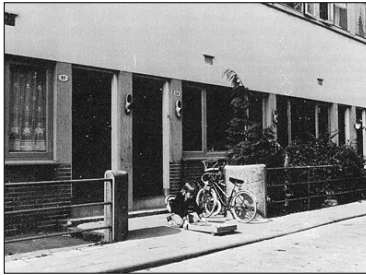


그림 17. 가로공간에서 본 출입구 전경
끼프족 집합주택은 공간에 대한 잠재적인 인간의 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전원도시형 집합주택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더 스테일과 신즉물주의라고 하는 이념은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다. 전원도시 이념과의 대립은 아우드가 1925년 끼프족 집합주택의 설계가 진행될 즈음에 시작되었고, 전통적 주택을 계승하기 위한 전원도시 이미지는 이런 양극화를 가속시켰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전원도시 이념과 신즉물주의 목표는 동일하다고 하였다. 이 집합주택에서 보여주는 아우드의 미학적 의도는 정면과 배면을 동일한 위치에서 표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단위계획과 공간구성은 기본적인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거주자의 행동양식은 이런 이중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주택의 뒷면에서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건축언어에 가려진 개인주택의 표현성을 회복시키고 있었다.



그림 18. 주택 뒷면의 개인정원과 햇간의 전경
암스테르담과 건축과 이와 비판적 입장이었던 아우드 건축과의 사이에 명백한 대조성과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적 원천을 베를리헤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는 매스의 연속성과 벽면의 평탄성에서 유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우드가 설계한 집합주택에서는 건물코너 처리는 클라크가 설계한 집합주택보다도 더 우아하면서도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가로 나열형 주택의 반복이라고 하는 문맥의 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클라크에 의한 구성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독특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아우드는 원형적인 해결법(prototypical solution)을 모색하고 있었다.

명서는 주택에서 ‘건축적 특징(architectural character)’을 위한 희망 사항이 요구되고 있었다.

“심사과정에서 최초이자 최대한의 주의를 요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계획, 최대한의 빛, 공기 그리고 최종적인 단계에서 설계의 미적 가치가 고려되어야만 한다.”²⁷⁾

1915년 민주적 기술자 및 건축사로 구성



그림 19. 주동 모서리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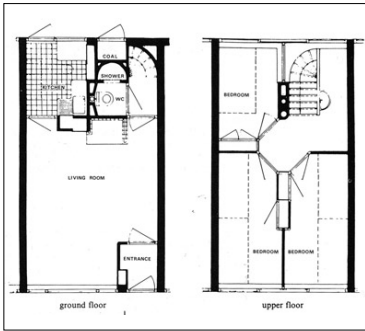


그림 20. 아우드, 끼프족 집합주택의 1층, 2층 평면도(로테르담).

1925~29
여기서 보여주는 두 가지의 평면은 너무나 유사하다. 아우드가 추구하고 있는 기능주의적 가정(假定)을 생각나게 한다. 1915년에 개최된 설계경기는 전원도시 운동의 범주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주거단위를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아우드의 계획에서는 주택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정확한 균형이 지나칠 정도로 잘 반영되어 있었다. 끼프족 집합주택의 단위는 소규모이고, 특히 대가족 구성원을 위하여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공간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된 사회기술 협회의 주최로 열린 노동자용 전원도시지구 설계경기의 제출안에 단위평면 계획을 요구하고 있었다. 몇 개의 제출안에서 원형적인 최소한의 주거디자인을 시도한 것을 볼 수 있다.

페트(A. Pet)의 디자인은 아우드의 끼프족 집합주택(그림 20 참조)의 단위평면 계획에 앞서고 있었다. 이 설계경기와 제차 세계대전 이전에 건설된 전원도시 계획은 반복 가능한 형태(repeatable type)라고 하는 이념에 자극 받아 집단화된 주거를 고려한 세력의 존재를 명백히 하였다.

1918년의 위기와 같은 해 2월에 개최된 주택회의에서 베르덴의 제안은 최소한의 주택이념이 광범위한 확산(currency)을 얻기 시작하였다. 베르덴이 정의한 각 세대의 형(types)에서 개략적인 바닥면적이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베를리헤는 통일법(unified solution)을 지향한 진보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자용 주택에서 적어도 평면의 구성에 관해서는 그 개념과 관련한 형식, 그리고 어떤 통일성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²⁸⁾

1906년과 1907년 두 번에 걸쳐서 건축축전협회는 설계경기 개최를 위하여 네덜란드 정부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 자체의 자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원형 주거계획(prototypical dwelling plans)의 발전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의 관심은 전쟁이후 주택위기의 도래와 더불어 높아졌다.²⁹⁾

네덜란드 정부는 1920년 『앨범』이라는 작은 잡지를 발간하였다. 이 잡지에는 세대당 225㎡부터 300㎡까지의 규모 안에서 50세대에 해당하는 평면계획이 게재되었다.

26) Maatschappij tot Bevordering der Bouwkunst, Eengezins Werkmanswoningen (The Hague, 1908), p. 5.

27) Ibid., p. 7.

28) H. P. Berlage, Noemalisatie in Woningbouw, p. 39.

29) Department van Arbeid, Album, bevattende een 50-tal Woningtypen voor het Rijksvoorschot te bouwen woningen. (The Hague, 1920)

이 잡지에 실린 내용은 대단한 논쟁거리였다.³⁰⁾ 특히 방들이 대단히 작은 규모라는 데에 놀라고 있었다.

『앨범』의 발행과 동시에 주택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최대 규모는 30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공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용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방이 5개 이내로, 그 중에서 3개는 침실이고 하나는 부엌을 말한다. 적어도 3개의 방 중에서 2개는 2개의 침대가 놓일 정도의 크기여야 한다.”³¹⁾ 이것이 최후이자 현재까지도 네덜란드 정부가 ‘최소한의 주거’라고 규정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건축사와 또 다른 건축 전문가들은 『앨범』이라는 잡지에 의해서 선택되고 게재된 건축적 내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런 잡지의 편집 방향에 불만을 품은 그룹에 의해서 『네덜란드 노동자용 주택』이라는 잡지가 출간되었다. 이 잡지의 편집자 중 한 사람인 베를라헤는 평면 형태의 통일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것을 그는 간결성으로 인한 경제적 필요성의 소치로 돌렸다. 베를라헤는 주택형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이런 간결성을 표현하고 있었다.³²⁾

1923년 쓰비르(L. Zwier)에 의해 출판된 『주택』은 최소한의 주거를 정의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였다. 쓰비르는 각방을 새롭고 정제된 표준형을 제안하기 보다는 기존의 형태를 채용하고 있었다.

아우드의 후 반 홀란드 집합주택(그림 7~13)은 1924년에 설계된 것으로 당시에 가장 시스템화 된 설계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1년 후인 1925년에 계획된 끼프훅 집합주택(그림 14~20)은 최소한 주거의 원형으로서

실제 평가를 받고 있었다. 원형주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더 스테일과 후기 기능주의자와의 사이에 존재한 또 다른 분기점이었다. 두스부르흐는 더 스테일이 선형적 사상을 거부하는 것을 이념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건축적 방법은 어떠한 기본적인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다.”³³⁾고 논하고 있다.

1927년에 선언된 더 아흐드가 더 스테일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지만 신즉물주의 건축사들은 1934년에 시행된 ‘노동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설계경기’에 응모한 작품에서 보여준 접근방법이 현저할 정도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1).

1929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CIAM 제2차 회의에서 ‘최소한의 주거’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건축사들 사이의 협동 문제는 점차 일반적인 것으로 되었지만 그밖에 1930년의 주택문제에서 보여준 높은

수준의 통일성을 설명할 수 있다. 1914년 초, 무데지우스는 개인적 재능의 산물로서 건축적 창조에 대항하는 형(types)과 표준(standards)의 욕망을 같은 선상에서 고려하게 되었다. 비록 더 스테일이 이런 이중성을 거절하였을지라도 네덜란드 기능주의자들은 원형의 문제에 대한 접근과 탐구를 받아들이는 방법에서 개인주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목표에 대한 설정이 위생, 기술, 경제성만을 취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통계학과 대중의 추상성이 충분히 고려된 영역이다.

신즉물주의 건축사들은 적절한 방위, 빛, 기술적 설비, 발코니 등이 갖추어진 이상적인 단위평면 계획에 대하여 대단히 시려 깊은 창조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인간의 집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서로 방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하는 것에 대한 구상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1934년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의 성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거내부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도시적 비전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상적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도 도출해내지 못하였다.

“사회, 위생, 경제, 기술, 그리고 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건축적 나침반의 다양한 요소들이 어떤 ‘해결법’으로 통합된다고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아마도 어떤 어려움이 최종적이거나 완전한 해결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찰하는 것은 가끔 있는 경향이다.

또 한편으로 전문지식에 대한 빈약성이다. 즉 빛과 공기에 대한 전문가, 표준화 전문가, 현대적 공간미학의 전문가 등으로서의 지식이 그것이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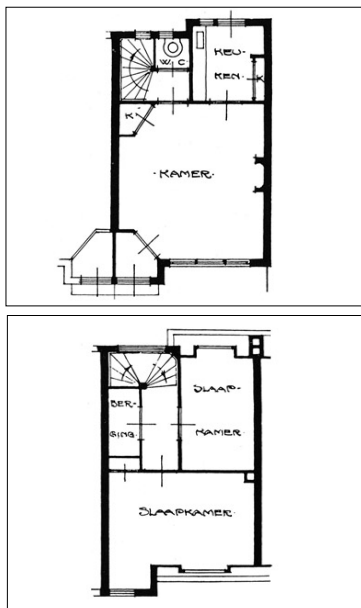


그림 21. 펙, 전원도시 자구의 설계경기안 (민주적 기술자·건축가로 구성된 사회기술협회 주최) 1층, 2층 평면도, '빛과 공기', 2등 당선작, 1915

30) P. Bakker Schut, E.J. de Maar, W. van Tijen, De Resultaten van de Woningwetbouw: De Woningen, 50 Jaar Woningwet, p.233.
 31) Prak, Zeventig jaar woningwet, p.34에 인용되어 있다.
 32) H.P. Berlage(A. Kepper, W.Kromhout, J.Wils와 공동), Arbeiderswoning in Nederland, p.ix.
 33) Theo van Doesburg, Tot een beeldende architectuur, p.79.
 34) Bauer, Modern Housing, pp.199~200.